

# 佛國寺 釋迦 多寶 두 塔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鄭基浩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 On “Matter and Form” of two pagodas – in the Temple Bulguksa –

Jung, Ki-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image of historic objects in matters of the artistic impulse. Two Pagodas in the Temple Bulguksa, those have a concrete character of the “matter & form” in the structure and buddhistic background, are chosen for this study.

With analysis and synthesis of the form and structure, those must be handled by overlapping, lifting and comparing in plan, elevation and mass, the structural pattern of them can be theoretically explained and aesthetically interpreted.

Conclusively, this study would be expected to make some references to the historic scene of the Temple Bulguksa.

#### 1. 머릿말

形式과 內容이라 함은, 예컨대 물과 그릇의 관계에서, 그릇은 물이라는 내용물을 담고자하는 ‘道具的 쓰임’을 그 形成要因으로 이미 內包하고 있는 것이며, 이때의 물을 매개로한 內包性이 형식에 대한 내용이 된다. 예를들면 정화수와 같이 물로써 상징되는 보편적 의미와 같은 것. 이미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러한 등속의 개념을 재론하는 것은, 본고를 위한 개념의 理論的 展開를 확인하고 用語的 約束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역사경관의 해석에서 논의될 수 있을 조형물의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

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불국사의 異形的 모습의 두 탑에 주안점을 두어, 法華經의 「見寶塔品」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體와 用”의 일반론적인 관계를 “內容과 形式”의 조형론적인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조형물의 창작에 개재된 예술성을 논하고자 한다.<sup>1)</sup>

법화경의 「見寶塔品」은 쌍탑형식의 일반적 조탑 배경의 중요한 근거로 수용되고 있고, 특히 불국사의 석가 다보 두탑은 견보탑품과 탑과의 상관관계

註1) 형식은 내용의 存在方式이어서 내용은 형식의 틀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를 나타낸다. 헤겔은, 예술의 내용은 이념이며 그것의 표현형식으로써 감성적 형상을 이룬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이념이 참된 형상을 만들어 내고 이 양자가 일치될때 理想이 이루어진다고 정의한 적이 있다. (조요한, 74:67) 이러한 미학개념으로부터, 형식은 고안된 것으로써 事物性을 지닌것을, 그리고 내용은 그 형식을 통하여 표현된 意味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體와 用의 개념에서, 用은 본질(體)를 이루는 형상이 없는 존재에 설명력을 주거나 존재방식을 부여해 주는 매체와 같은 것이어서, 석가탑과 다보탑에 대하여 각각을 체와 용의 대상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註5 참조)

를 설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불교학 차원에서의 쌍탑조영의 배경 그리고 그 일환으로 생겨났을 것으로 보는 석가 다보 두탑의 조영이나 명칭등에 관하여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에 대한 그 구성상의 세밀한 고찰과 검토, 즉 이미 정설화 되어있는 원칙론 이상의 어떤 디자인 차원의 검토는 그리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두 탑의 외형적 이형성과 관련된 형식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무엇을-왜-어떻게”의 논리에 의해 작품창작을 통하여 나타나는 作品의 藝術性을 논해 볼 수 있는 한 例가 되며, 조형 예술에서의 미적추구에 관한 思惟를 작가의 自己實現의 맥락에서 논해 보려는 것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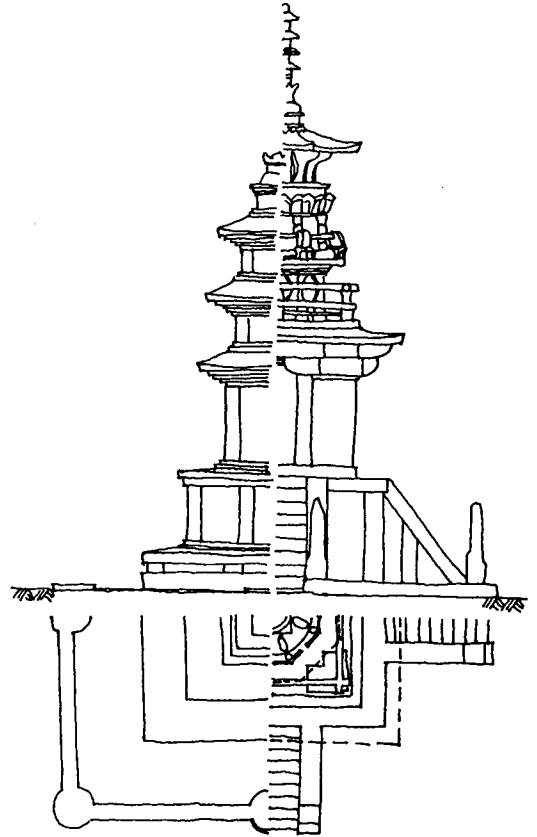
## 2. 釋迦塔과 多寶塔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우리가 알고있는 雙塔의 일반형식과 비교하여 매우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 일반적인 쌍탑의 경우 金堂이나 大雄殿의 좌우에 동일한 형식으로 쌍둥이 탑을 이루는 것인데 반하여 이 두탑은 전체형식과 세부장식에 있어서 서로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해서 일단 예외적인 異形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질성 또는 예외적인 성격은 어떤 배경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 주된 원인이 있을 것임이 틀림없으며, 그 원인의 규명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원칙론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써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두 탑의 조탑배경 및 조탑

의 개념은 法華經의 「見寶塔品」<sup>3)</sup>을 비롯한 불교학과 관련된 문 연구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釋迦佛과 多寶佛의 登場과 그 場面の 形象化라는 작품동기는, 이미 신라불교 이전의 인도나 중국의 사원 및 그림 등의 소위 쌍탑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알



[그림-1] 석가탑과 다보탑의 평면 및 입면 비교도  
(자료 : 米田美代治의 실측도면을 근거로 하여 재구성함)

註2)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과 그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內容과 形式”의 관계는 불국사의 사찰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탑은 사찰 전체의 공간경영과 관련하여 사찰경영의 압축된 조형성의 표출대상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탑을 사찰 전체와의 관계로써 함께 논의하여야 함이 당연하리라 보지만 탑 자체의 논의는 총체적 고찰에 앞선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서 본고는 주로 두탑의 높이와 형태의 차이에 대한 도형의 발견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탑의 조형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게 되었다. 도형에 의한 분석 과정에서, 불국사에 대한 일련의 검토, 즉 두탑을 비롯한 불국사 경내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부차적인 세부사항들의 검토결과로부터, 결국은 전체 공간의 경영자(또는 작가)의 작가론과 같은 성격의 경관해석(또는 작품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추후의 기회에 따라이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 본다.

註3) 견보탑품은 석가가 영산회상에서 설법한 내용을 담은 법화경의 한 장면이며, 석가의 설법이 옳음을 증명한다는 역할로써 다보여래가 현현함을 서술한 내용을 담고있다 : “다보불께서는 매우 깊고도 중대한 誓願이 있으니, 그것은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든 부처님 앞에 寶塔을 출현시킬때 만일 그의 몸을 대중들 앞에 나타내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당신의 분신인 모든 부처가 시방세계의 곳곳에서 설법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을 모두 불러 한곳에 모이게 한 후에야만 비로소 그 몸을 나타내시겠노라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박해경, 85:113)

려져 있는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정희,81:5-12)

두탑의 구성은 교리적 해석에 바탕을 둔 造塔原則의 설명과는 또 다른 각각의 塔狀과 그에 따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탑의 異形性을 구체적인 형태분석으로써 밝힐 필요가 생긴다. 크개는 탑의 규모 및 높이에서 서로 균등하지 않아 구성원리의 측면에서 보아 심한 불균등을 보인다는 점, 기본패턴에 있어서 이들은 각각 方形과 八角形을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塔形 自體에 있어서 석가탑은 탑의 일반형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다보탑은 극히 예외적인 모습의 것으로 텅빈 몸체 위에 올려진 탑신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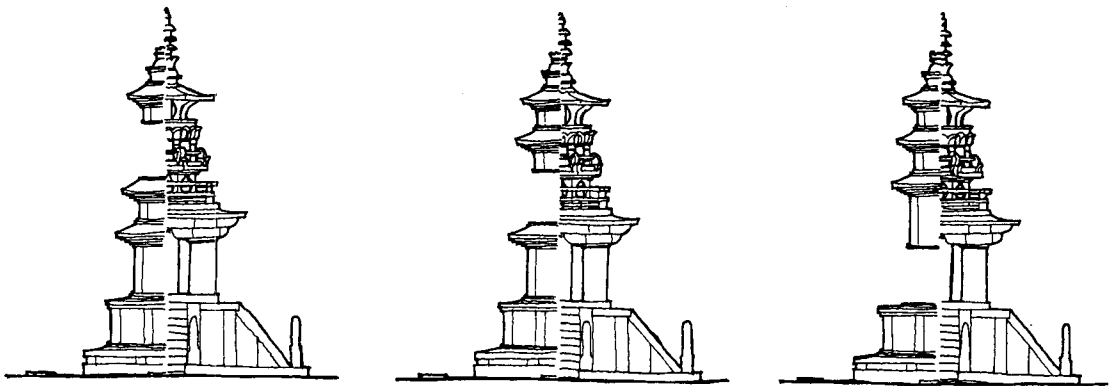
이같은 서로 異形의 탑상에 대하여, 평면적 규모에서 보이는 상호간의 차이는 석가탑 둘레의 팔방금강좌로써 다보탑의 계단 외곽선과를 견줄 때 동일한 규모의 것으로 나타나며(그림-1), 마찬가지로

입면상의 규모에서 보이는 대략 상륜부 만큼의 높이차는 거의 다보탑의 기단 또는 각 층별 탑신의 높이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임에 착안하여 이들 각 탑신의 층별 상호비교를 시도해 볼 수 있게된다.

즉 두 탑을 그대로 견주어보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차가 나는 그 간격을 개념적으로 극복하여<sup>4)</sup> 석가탑의 기단이나 탑신을 다보탑의 각 부분과 맞추어서로 겹쳐 봄으로써 두 탑간에 개재된 같은 맥락의 구조적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2 참조)

석가탑은 설법하는 석가여래의 法體刹幢으로, 體는 相이 없는 것이므로 일명 無影塔이라고 하며, 다보탑은 다보여래의 寶座로써 석가여래의 說法을 證明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用으로 보아 두탑을 각각 體-用으로 보는 것은 불교미술학 분야에서 정설로 되어 있는 듯하다. (장충식,90:10, 홍광표, 90:36)

석가탑은 석가여래의 法體<sup>5)</sup>의 상징매체로써 그 체의 상은 원래 없는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고



[그림-2] 석가탑 다보탑의 탑신 비교도

(그림의 1,2,3은 각각 석가탑의 3층탑신, 2층탑신, 그리고 1층탑신을 허공에 띄워 놓는다는 개념에서 다보탑과의 입면적 비교를 도상화 해 본 것임.)에서 볼 수 있다.

註4) 여기서 ‘개념적으로 극복한다’함은 현실적인 구조체의 조립으로서로는 불가능하지만 탑신 간의 특정공간을 허공에 띄워 놓는다는 비현실적 차원으로 도상화 한다는 것을 뜻함. 이것의 이론적 배경은 견보탑품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공중에 나타난 보탑과 관련하여, 석가탑의 각 탑신을 차례로 공중에 띄워 놓은 것으로 해석해 보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림-2의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견보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다: “다보 석가 두 여래님께서 공중에 솟아있는 보탑 속의 옥좌에 앉아 계심을 본 대중들... 이들의 마음을 살피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즉시 그 일등을 허공으로 끌어 올리시고서...”(박해경,85:116)

註5) 法體: 法은 불교용어로서 佛의 가르침이 되는 내용 또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의 體는 석가의 說法이 지니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따로이 법체라고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임. 佛(여래)의 방편적 현현을 묘사한 형상체로서의 다보탑을 用으로 볼때 석가탑은 體가 됨을 말함.

그에 비하여 ‘다보여래의 현현’은 법체의 상을 方便의으로 나타내 보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는 곧 法體의 ‘理’에 대한 그 現象의인 ‘事’를 설명한 것이 된다.<sup>6)</sup>

이 두 體와 用은 석가 다보여래의 合座와도 같이 7) 서로 합일된 모습으로 또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 줄 것이 기대된다. 바로 그 점이 두 도형을 겹쳐본 方形과 八角形의 合—圖形으로써 이 두 패턴은 일정한 관계 속에서 同心圓의인 하나의 도형을 보이는 것이다.<sup>8)</sup>(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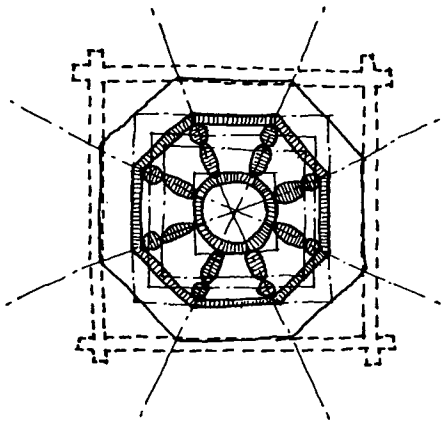
이러한 서로 이형적인 모습의 두탑의 비교검토는, 이들간에 개재된 구조적 동일성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견보탑품에서 묘사된 다보불 형상의 조형언어적 해석과 표현으로서의 다보탑의 탑상은 석가탑의 일반탑형<sup>9)</sup>에 대하여 다보탑이

독특한 형상의 이형탑형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일 것이고 또한 견보탑품의 석가불과 다보불의 合座(二佛同座)場面이 뜻하는 바가 그림-2와 그림-3과 같은 형식에 의한 조형적 표현으로 나타난 두 탑의 평면과 입면 그리고 세부장식상의 구조적인 차이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가늠해 본다.

조탑의 교리적 배경과 조탑행위에 개재된 디자인의 원리 및 그 구성을 살펴본 바와같이, 석가불과 다보불을 상징하는 매체<sup>10)</sup>로서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造塔의 재료적 구성매체적 制限條件을 가능한 技術의 限度에서 극복 또는 초월적 해석을 통하여 조각 및 조영해 놓고있다. 이로써, 다보탑의 四方階段과 方形의 基壇 그리고 그 위의 팔각형 패턴으로써 이루어 놓은 영롱한 다보불 형상의 묘사는 곧 [견보탑품]에 보이는 多寶佛 現顯의 藝術的 再現이라고 해석해 본다.

### 3. 고찰과 견해

하나의 작품은 그 외형적인 구성 또는 디자인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속에 담긴 또는 그를 매개로 하여 밝히고자하는 어떤 世界<sup>11)</sup>를 전해준다. 形式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內容은 그에 적절한 媒體로서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視覺的으로 具體化되어 나타난다. 법화경의 「견보탑품」은 法體의 方便의 形象化에 대한 교리적 배경이 되고 다보탑은 그리하여 법체의 방편적 형상체가 된다. 다보탑의 존재에 의하여 상이 없는 법체는 그림자 없는 석가탑으로 표징된 것이며 이러한 배경을 지닌 두 탑은



[그림-3] 석가탑 다보탑 구성 패턴의 압일도

註6) ‘事理判斷’이란 말에서의 事와 理를 말한다. 김용옥은 ‘이판사판’의 어원적 풀이로써 理判과 事判, 즉 理에 해당하는 ‘法의 것’과 事에 해당하는 ‘現世의인 經營의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김용옥, 89:33)

註7) 「견보탑품」에 보이는, “다보불이 자신의 자리를 비껴어 한자리를 마련하여 석가불을 자신의 옆자리에 들도록 하였다”(박해경, 85:115)는 내용을 말한다.

註8) 이 점에 관한 밀교적 만다라 도형의 여부는 세심한 검토를 요하게 되리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西歐의 만다라 개념이 그러하듯, 단순한 의미에서의 같은 도형의 同心의인 반복패턴과 이를 중심으로 더 巨視的인 領域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微視的인 領域의 계속되는 동심적인 반복패턴(이규목, 88:36-44) 등의 도형적 검토는 앞으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註9) 석가탑의 탑형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예외적인 요소에서 깨어지게 되는 바, 이는 기단하부의 지면과의 사이에 큰 자연석의 무리가 박혀 있는 점이다. 일반적인 못 탑의 경우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단정한 지면에 올려져 있다. 또 다른 미해결사항은 상륜부에 새로이 만들어 놓은 보주부분에 있으나 이는 자연석과 관계된 문제와 함께 석가탑이 지니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여지로 남는다.

註10) “이것이 특히 석가탑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동쪽에 있는 다보탑이 다보불의 座所를 표시한데 대해 이것은 석가여래의 좌소를 나타내는 까닭이다.”(김원룡, 79:163)

註11) 하이데거는 예술의 본질을 “세계의 밝힘”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이 경우의 세계(Welt)라 함은 예술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현상을 일컫음.

탐상의 분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에 내재되어 나타나는 내용적 현상미는, 각 예술장르의 고유한 표현형식을 통한 可視的 作業으로써 藝術的 本質性을 전달해 주거나 밝혀주고 있다.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 즉 미적추구의 궁극적 당위성으로서의 예술의 실현을 두고 예술의 근원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가 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재론해 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예술의 근원을 “세계의 밝힘”으로 보았고 세계를 밝히는 수단과 과정을 作品이라고 설명하여 그때의 매체가 곧 작품이라 설명한다. 회람의 신전을 두고 설명한바 있는 그의 논리는 본고의 고찰과 무관하지 않다.

19세기 프로이센의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쉹켈의 회화작품 "회람 전성시대에의 凝視"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作家의 自己實現의 문제는 작품화에서의 예술적 본질성의 한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기호, 90) 즉 회람의 전성시대를 회구하는 프로이센적 추구라는, 작가에게 던져진 표면적이고 公的인 作品化의 問題 속에 극히 구성적인 표현을 통해 표출해 놓은 個人的인 自身의 問題는, 그로써 이루고자 했던 그 작품에 대한 예술가 자신의 작품성이었음을 살필 수 있다. 작품의 예술성은 작품을 통하여 밝히는 여러 층의 세계가 있고 궁극에는 작가 자신의 세계를 나타낸 궁극적인 세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각 탐의 구성미는 그 각각의 내용과 그들의 합일된 내용을 담고있고 이로써 조타자는 탐형식의 작품 속에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내용을 담아 놓고 있다. 합일된 도형의 구성미는 궁극적인 미적 개념의 내용과 형식의 구현으로써 우리에게 밝혀져 온다. 작품에 대한 미적고찰, 즉 석가 다보 두탑에 대한 내용과 형식에 의한 미적고찰은, 석가 다보의 두 탐은 法의 方便의 形象과 法體라고하는 內容마저 作品化하여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찰공간의 빈 세계에서 일차적으로는 佛國의 具現을 밝혀받고 나아가서는 그로써 法의 體와 用을 밝혀 받을 수도 있게된다.

이러한 造塔에 개재된 결과는 불국사 전체 조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즉 김대성의 궁극적인 예술

적 추구는 이러한 두탐에 의한 “體와 用”의 “內容과 形式”에 의한 形象化를 통하여 엮고자 한 불국사 조영의 전체 맥락 속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며,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는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져야 할 것이란 문제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1. 김용욱, 1989,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도서출판 통나무.
2. 김원룡, 1979, 한국미의 탐구, 한국문화예술총서-1, 열화당.
3. 米田美代治, 1944, 朝鮮上代建築の研究; 신영훈 (외) 역, 1976,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동산문화사.
4. 박혜경, 1985, 법화경 입문, 범우사.
5. 이규목, 1988, 도시와 상징, 일지사.
6. 장충식, 1990, 불국사 복원 회람의 문제, 제9회 신라문화학술회의 <토함산 불국사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7. 정기호, 1989, 조형물의 내재성 고찰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과학기술편) 제40집1호,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pp. 351-362.
8. 정기호, 1990, 경관의 인식과 형상화에 관한 고찰; K. F. Schinkel의 회화 <회람전성시대에의 응시>를 중심으로, 성대논문집(과학기술편) 제41집2호,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pp. 313-331.
9. 조요한, 1974, 예술철학, 범문사.
10. Heidegger, M., 1952,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aus "Holzweg", 오병남(외) 역, 1979, 예술작품의 근원, 경문사.
11. 한정희, 1981, 한국 고대 쌍탑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한국불교연구원, 1976, 한국의 사찰-1: 불국사, 일지사.
13. 홍광표, 1990, 불국사의 경관상징성에 관한 연구, 제9회 신라문화학술회의 <토함산 불국사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